

# 나주시, 지역화폐 1000억원 발행한다

### ‘나주사랑상품권’ 작년 836억 유통 ... 지역경제 효과 노릇 1분기 상품권 구매액 10% 할인 지속...법인 및 단체는 제외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을 1000억원(지류 80%, 카드20%)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상품권 발행·유통액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일반판매분 507억원과 농어민 공익수당·취약계층 생계비·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책분 329억원 등 총 836억원 규모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됐다.

시는 올해 1분기 지류·카드 상품권 구매 금액의 10%할인 판매를 지속한

다.

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상품권 발행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판매 상품권 가맹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에 따른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효과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최근 몇 년 간 상품권 판매액 증가세는 가히 괄목할 만하다.

지난 2018년 17억원, 2019년에는 41억원 규모 상품권이 발행됐으나 지난 해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에 따른 상품권 구매액 10%할인, 범시민적 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 전개, 카드상품권 발행 등에 힘입어 약 20배가 넘는 판매고를 달성했다.

시는 판매 대행전과의 협력체계 구

축과 통합전산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류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에 힘쓰고 있다.

매출액 대비 환전액이 많은 가맹점을 집중 관리·단속하는 등 부정유통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류·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은 개인별 월 70만원 한도 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56개소에서 신청 당일 구매·발급되며 판매 가맹점 3100여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상품권을 사용하면 직장인 연말정산 시 자력으로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한 마음으로 동참한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생활화 운동에 힘입어 코로나 위기를 맞은 우리 지역 골목상권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었다"며 "2021년 새해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품권 에움을 통해 지역 경제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화순군, 비대면 청렴 실천 결의대회

화순군이 4일 군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시무식과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전체 실·과·소에 방송된 청렴 실천 결의대회에서 김선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과 김현미 행복민원과 개발민원팀 주무관이 직원 대표로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중곤 군수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직원들은 청렴 결의문을 통해 "부정청탁 근절·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금품수수 금지·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등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화순군은 지난해 '청렴 정착 원년'을 선포하고 구중곤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 청렴 서약, 청렴 실천 결의대회, 부

서별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부패 공직자 퇴출제 시행과 징벌 제재 강화 등 31개 고강도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 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특히, 내부 청렴도 평가 중 인사 분야에서는 9.08점을 받아 전국 최상권을 기록했다.

구중곤 군수는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청렴도가 상승했지만, 군민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체감도 높은 서비스 발굴·추진으로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뿌리 내려 '청렴 1번지 화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 담양군, 농업생산기반 시책 평가 기관표창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도 농업생산기반 시책 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매년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편의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입은 군민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봉산대전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3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군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 곡성군, 심청상품권 쓰면 돈 버는 셈 지류 10% 할인·모바일은페이백까지 15% 할인 효과

곡성군이 지역화폐인 심청상품권의 올해 판매목표를 100억 이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상품권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지류 심청상품권(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도 올해는 10% 할인 판매한다는 것이다. 지

난해 곡성군은 모바일 심청상품권은 10%, 지류 상품권은 5%만 할인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군민들의 꾸준한 수요가 있어 올해 할인율을 높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심청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높이고, 결제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돌려준다. 구매할인과 합산하면 소비자는 총 15%의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다. 더불어 모바일심청상품권으로 5천원 이상 결제한 사람 중매월 200명을 추첨해 최대 3만원에서 최소 5천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곡성군은 2019년 12월 전남도내 최초로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발행했다. 또한 상품권의 이용확산을 위해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다

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상품권 판매액은 2019년 26억에 비해 56.9% 증가한 174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민들도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심청상품권 이용 활성화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소상공인을 위해 심청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21세기장성아카데미, 김동연 이사장 강연 타인과 자신·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 찾기

'21세기장성아카데미'의 문이 새해부터 힘차게 열린다. 장성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운영 횟수를 매주 목요일에서 격주(첫째, 셋째주) 목요일로 줄였다. 또 사전 공연을 취소해 운영 시간도 16:30-18:00로 축소했다.

강연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현장 강연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한정된 인원을 사전 모집하고, 새롭게 온라인 강연을 도입해 장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오는 7일 열리는 제1122회 강연에는 김동연 유쾌한반란 이사장이 강단에 선다. 김 이사장은 1982년 제6회 입법고시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정책기획원 사무관,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직을 역임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와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주대학교 총장 취임 후에는 '유쾌한 반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혁신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을 세워 계층 이동, 혁신성장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저서에는 '있는 자리 홀트리기' 등이 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강연에서 김동연 이사장은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려는 가장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인 '반란'을 통해 타인과 자신, 그리고 사회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1995년에 개강한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수준 높은 강연을 개최해왔다. 2019년에는 유력연말 오피셜월드레코드(EU OWR)로부터 '세계 최장기간 운영된 정기적 사회교육 프로그램'인증을 받은 바 있다.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